

“인터넷 미디어 특성을 반영한 피해구제책 마련” 강조 - 박용상 위원장, 부산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은 6월 5일 부산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부산지역 언론현황 및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언론 피해구제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뉴스콘텐츠가 생산·소비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언론사 대표들은 인터넷 상의 뉴스 베끼기와 어뷰징의 폐단을 지적하는 한편,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펌 기사나 악성 댓글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의 부작용도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언론중재제도도 새롭게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아날로그 시대에 오프라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제정된 현행 법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맞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정보도가 이뤄진 후에도 잘못된 기사가 인터넷상에서 복제·전파되거나 위법한 뉴스댓글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된 사안에 대한 분쟁 조정 등 언론보도로 야기된 피해를 일괄 구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상 위원장,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언론인터뷰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은 6월 23일 미디어 전문 비평자인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가졌다.

박 위원장은 디지털 미디어환경의 특성에 맞춰 언론피해구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위법성이 확인된 보

도에 대한 복제 및 전파기사 등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 두바이에서 열린 ‘AMIC 국제컨퍼런스’ 참석

위원회는 2015년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방문하여 국가언론평의회(NMC)를 시찰하고, 아시아 미디어 정보 커뮤니케이션센터(AMIC)가 주최하는 제24회 AMIC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방문단은 오재성 중재부장(서울 제7중재부), 박성희 중재위원(서울 제8중재부), 남

부희 중재위원(경남중재부)으로 구성됐으며 이미경 부산사무소장, 박진규 조사관이 수행자로 동행했다.

방문단이 참가한 AMIC 국제컨퍼런스는 ‘E-Asia에서의 커뮤니케이션 : 가치, 기술과 도전(Communicating in an E-Asia: values, technologies and challenges)’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등 25개국에서 온 약 250여명의 언론학자 등이 참석했다. 총 4일에 걸쳐 37개의 다양한 소 주제로 발제와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언론자유의 과제’, ‘미디어 민감성과 언론의 책임’, ‘뉴미디어 윤리와 담론’ 등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왼쪽부터 남부희 중재위원, 박성희 중재위원, UAE국가언론평의회 Ayman Khasawneh 법무보좌관, 오재성 중재부장, 이미경 부산사무소장, 박진규 조사관

위원동정
— COMMISSIONERS

광주지역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6월 30일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언론인 및 관계기관 인사를 초청해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인정한 기사삭제청구권을 권리침해적 온라인 기사에 대한 피해구제수단의 하나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업무를 담당해온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조경완 교수는 "기사삭제청구권은 명백한 허위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도,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실과 다르다고 드러난 보도 등에 대해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라며 인터넷 시대의 피해구제를 위해 기사삭제청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광주방송 박태명 편성제작국장은 "잊혀질 권리 차원의 기사삭제청구권 허용시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보도의 기록적 가치 등의 법익과 충돌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언론계, 학계, 관계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전남지역 언론계, 학계, 주요 관계기관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랑의 빵나눔터' 봉사

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은 지난 6월 4일 대한적십자사 용산적십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빵나눔터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봉사 참여자들은 강사로부터 제빵 교육을 받고 빵 만들기과 배달용 포장까지 전 과정을 직접 함께 했으며, 이 날 만들어진 4백 여개의 빵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 전달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장 취임



이영덕 위원(서울제7중재부,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6월 12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제3대 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 원장은 KBS이사, 개인정보보호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경남도지역신문발전위원장 재선임



남부희 위원(경남중재부, 전 경남신문 논설주간이사)은 6월 18일 경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임됐다. 임기는 2년으로 2017년 6월 17일까지이다.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전면 개편



위원회는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홈페이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와 교육신청안내 홈페이지인 조정중재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화면크기에 따라 페이지가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이용자들이 다양한 기기에서 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전남 인터넷기자 대상 교육 실시

위원회는 6월 5일 광주 주월동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에 위치한 위원회 광주교육장에서 광주·전남 지역 인터넷매체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사례와 판례로 보는 언론보도 분쟁과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에는 전남인터넷신문을 비롯한 6개 지역 인터넷매체 기자 15명이 참석했다.